

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, 인민복무전이다. (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에서)

지난 8월 28일
부터 우리 나라의 북
부지역에 내려와서
작은 대를 기운 바
는 이를 동안 순간도 그칠 없이 쏟아
졌다.

한 조각의 푸른 하늘도, 한 가닥의
해빛마저도 없었다. 시간이 흐를수록
시커먼 비구름들이 낮게 떠들며 폭
우를 불러왔다.

두만강이 범람하였다. 갈매를 셀 수
없는 수많은 물새들이 누런 강기
를 치여들고 사자를 내렸다. 산사태가
지는 무시무시한 소리, 온 천지를 뒤
덮고 불어만 가는 황수.

대자연의 광활한 시원들은 어떤
해졌다.

큰물이 지난 뒤 무산군은 말그대
로 폐허였다.

나라의 큰 전쟁을 치르렀다 해도
이보다 더 혹심하게 파괴될 수 있었
으랴.

수많은 살림집들이 형체 없이 무너
졌다. 큰물은 풍물풀과 절경, 도
로, 교량과 농경지들을 살피고 훤히
여러웠다.

천막, 통신망마저 끊어져 군에서는
들이 딱히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그
어디에 알릴 수도 없었고 방조를 청
할 수도 없었다.

뜻밖의 엄혹한 세단은 무산군만이
아닌 무만강연안의 시, 군들을 덮쳐
였다. …

그즈음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의
중심부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끌어온
커미 려명거리가 사회주의 강국을 대
표하는 또 하나의 표준, 본보기거리
로 어려히 키를 솟구고 있었다.

물과 몇 달전까지만도 전망도에 그
려져있던 려명거리가 빌찌 완공의 날
을 미루어가고 있었던 것이다.

하늘을 썄물듯 솟구친 70층 살림집
의 만장을 덮었는가 하면 여기저기
에서 승벽내기로 키운을 끄는 수십
동의 더미, 고층, 초고층 살림집들, 살
림집내부공사도 적극 추진되어 당장
이라도 보금자리를 평수 있게 완성
된 세대수는 1 000여세대, 그런
가 하면 빠른 속도로 특별한 도급을
을 드려내고 있는 당시 짐영화판과
봉사당들.

분초가 다르게 기울을 창조해가는
만리의 건설속도로 하여 이제 얼마
안 있어 완공될것이라고 건설자들이
제당하고 수도시민들도 력관하고
있는 려명거리.

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히 그
이름 지어주신 려명거리완공의 의의
는 자못 크다. 그것은 그 거리가 사
회주의 분명국의 세로에 맞는 거리,
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융장화
례하게 변모시킬 거리이기 때문이다.
아니다.

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주종세
력들의 치열한 대결전, 사회주의와
제국주의 간의 대결전이었다.

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인민군인
들을 비롯한 려명거리 건설자들이
기여에 열정을 떨리고 있는 그들에
게 밤은 없었다. 건설장의 밤은 불
빛휘황하였다.

그 때 우려 조국의 한 부분인 함북
도의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큰물과

의 결연을 벌리고 있었다. 그들은
불어지는 물 풍파 쓸어가는 무더기비
속에서도 가정들에 모신 위대한
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목숨으로
보워하였다. 절안으로 물러드는 물을
보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
두만강이 범람하였다. 갈매를 셀 수
없는 수많은 물새들이 누런 강기
를 치여들고 사자를 내렸다. 산사태가
지는 무시무시한 소리, 온 천지를 뒤
덮고 불어만 가는 황수.

이들이 개학준비는 어찌하고 접
도 없이 당장 들이탁칠 복방의 가혹
한 추위는 이렇게 이겨내겠는가.

사람들은 머리에 맷돌을 얹은 나
이에도 막다른 지경에 둘면 먼저 어
머니를 생각하는 밀이다.

수많은 살림집들이 형체 없이 무너
졌다. 큰물은 풍물풀과 절경, 도
로, 교량과 농경지들을 살피고 훤히
여러웠다.

천막, 통신망마저 끊어져 군에서는
들이 딱히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그
어디에 알릴 수도 없었고 방조를 청
할 수도 없었다.

그즈음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의
중심부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끌어온
커미 려명거리가 사회주의 강국을 대
표하는 또 하나의 표준, 본보기거리
로 어려히 키를 솟구고 있었다.

물과 몇 달전까지만도 전망도에 그
려져있던 려명거리가 빌찌 완공의 날
을 미루어가고 있었던 것이다.

하늘을 썄물듯 솟구친 70층 살림집
의 만장을 덮었는가 하면 여기저기
에서 승벽내기로 키운을 끄는 수십
동의 더미, 고층, 초고층 살림집들, 살
림집내부공사도 적극 추진되어 당장
이라도 보금자리를 평수 있게 완성
된 세대수는 1 000여세대, 그런
가 하면 빠른 속도로 특별한 도급을
을 드려내고 있는 당시 짐영화판과
봉사당들.

분초가 다르게 기울을 창조해가는
만리의 건설속도로 하여 이제 얼마
안 있어 완공될것이라고 건설자들이
제당하고 수도시민들도 력관하고
있는 려명거리.

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히 그
이름 지어주신 려명거리완공의 의의
는 자못 크다. 그것은 그 거리가 사
회주의 분명국의 세로에 맞는 거리,
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융장화
례하게 변모시킬 거리이기 때문이다.
아니다.

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주종세
력들의 치열한 대결전, 사회주의와
제국주의 간의 대결전이었다.

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인민군인
들을 비롯한 려명거리 건설자들이
기여에 열정을 떨리고 있는 그들에
게 밤은 없었다. 건설장의 밤은 불
빛휘황하였다.

그 때 우려 조국의 한 부분인 함북
도의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큰물과

의 결연을 벌리고 있었다. 그들은
불어지는 물 풍파 쓸어가는 무더기비
속에서도 가정들에 모신 위대한
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목숨으로
보워하였다. 절안으로 물러드는 물을
보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
두만강이 범람하였다. 갈매를 셀 수
없는 수많은 물새들이 누런 강기
를 치여들고 사자를 내렸다. 산사태가
지는 무시무시한 소리, 온 천지를 뒤
덮고 불어만 가는 황수.

이들이 개학준비는 어찌하고 접
도 없이 당장 들이탁칠 복방의 가혹
한 추위는 이렇게 이겨내겠는가.

사람들은 머리에 맷돌을 얹은 나
이에도 막다른 지경에 둘면 먼저 어
머니를 생각하는 밀이다.

수많은 살림집들이 형체 없이 무너
졌다. 큰물은 풍물풀과 절경, 도
로, 교량과 농경지들을 살피고 훤히
여러렸다.

천막, 통신망마저 끊어져 군에서는
들이 딱히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그
어디에 알릴 수도 없었고 방조를 청
할 수도 없었다.

그즈음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의
중심부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끌어온
커미 려명거리가 사회주의 강국을 대
표하는 또 하나의 표준, 본보기거리
로 어려히 키를 솟구고 있었다.

물과 몇 달전까지만도 전망도에 그
려져있던 려명거리가 빌찌 완공의 날
을 미루어가고 있었던 것이다.

하늘을 썄물듯 솟구친 70층 살림집
의 만장을 덮었는가 하면 여기저기
에서 승벽내기로 키운을 끄는 수십
동의 더미, 고층, 초고층 살림집들, 살
림집내부공사도 적극 추진되어 당장
이라도 보금자리를 평수 있게 완성
된 세대수는 1 000여세대, 그런
가 하면 빠른 속도로 특별한 도급을
을 드려내고 있는 당시 짐영화판과
봉사당들.

분초가 다르게 기울을 창조해가는
만리의 건설속도로 하여 이제 얼마
안 있어 완공될것이라고 건설자들이
제당하고 수도시민들도 력관하고
있는 려명거리.

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히 그
이름 지어주신 려명거리완공의 의의
는 자못 크다. 그것은 그 거리가 사
회주의 분명국의 세로에 맞는 거리,
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융장화
례하게 변모시킬 거리이기 때문이다.
아니다.

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주종세
력들의 치열한 대결전, 사회주의와
제국주의 간의 대결전이었다.

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인민군인
들을 비롯한 려명거리 건설자들이
기여에 열정을 떨리고 있는 그들에
게 밤은 없었다. 건설장의 밤은 불
빛휘황하였다.

그 때 우려 조국의 한 부분인 함북
도의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큰물과

의 결연을 벌리고 있었다. 그들은
불어지는 물 풍파 쓸어가는 무더기비
속에서도 가정들에 모신 위대한
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목숨으로
보워하였다. 절안으로 물러드는 물을
보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
두만강이 범람하였다. 갈매를 셀 수
없는 수많은 물새들이 누런 강기
를 치여들고 사자를 내렸다. 산사태가
지는 무시무시한 소리, 온 천지를 뒤
덮고 불어만 가는 황수.

이들이 개학준비는 어찌하고 접
도 없이 당장 들이탁칠 복방의 가혹
한 추위는 이렇게 이겨내겠는가.

사람들은 머리에 맷돌을 얹은 나
이에도 막다른 지경에 둘면 먼저 어
머니를 생각하는 밀이다.

수많은 살림집들이 형체 없이 무너
졌다. 큰물은 풍물풀과 절경, 도
로, 교량과 농경지들을 살피고 훤히
여러렸다.

천막, 통신망마저 끊어져 군에서는
들이 딱히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그
어디에 알릴 수도 없었고 방조를 청
할 수도 없었다.

그즈음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의
중심부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끌어온
커미 려명거리가 사회주의 강국을 대
표하는 또 하나의 표준, 본보기거리
로 어려히 키를 솟구고 있었다.

물과 몇 달전까지만도 전망도에 그
려져있던 려명거리가 빌찌 완공의 날
을 미루어가고 있었던 것이다.

하늘을 썄물듯 솟구친 70층 살림집
의 만장을 덮었는가 하면 여기저기
에서 승벽내기로 키운을 끄는 수십
동의 더미, 고층, 초고층 살림집들, 살
림집내부공사도 적극 추진되어 당장
이라도 보금자리를 평수 있게 완성
된 세대수는 1 000여세대, 그런
가 하면 빠른 속도로 특별한 도급을
을 드려내고 있는 당시 짐영화판과
봉사당들.

분초가 다르게 기울을 창조해가는
만리의 건설속도로 하여 이제 얼마
안 있어 완공될것이라고 건설자들이
제당하고 수도시민들도 력관하고
있는 려명거리.

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히 그
이름 지어주신 려명거리완공의 의의
는 자못 크다. 그것은 그 거리가 사
회주의 분명국의 세로에 맞는 거리,
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융장화
례하게 변모시킬 거리이기 때문이다.
아니다.

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주종세
력들의 치열한 대결전, 사회주의와
제국주의 간의 대결전이었다.

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인민군인
들을 비롯한 려명거리 건설자들이
기여에 열정을 떨리고 있는 그들에
게 밤은 없었다. 건설장의 밤은 불
빛휘황하였다.

그 때 우려 조국의 한 부분인 함북
도의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큰물과

의 결연을 벌리고 있었다. 그들은
불어지는 물 풍파 쓸어가는 무더기비
속에서도 가정들에 모신 위대한
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목숨으로
보워하였다. 절안으로 물러드는 물을
보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
두만강이 범람하였다. 갈매를 셀 수
없는 수많은 물새들이 누런 강기
를 치여들고 사자를 내렸다. 산사태가
지는 무시무시한 소리, 온 천지를 뒤
덮고 불어만 가는 황수.

이들이 개학준비는 어찌하고 접
도 없이 당장 들이탁칠 복방의 가혹
한 추위는 이렇게 이겨내겠는가.

사람들은 머리에 맷돌을 얹은 나
이에도 막다른 지경에 둘면 먼저 어
머니를 생각하는 밀이다.

수많은 살림집들이 형체 없이 무너
졌다. 큰물은 풍물풀과 절경, 도
로, 교량과 농경지들을 살피고 훤히
여러렸다.

천막, 통신망마저 끊어져 군에서는
들이 딱히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그
어디에 알릴 수도 없었고 방조를 청
할 수도 없었다.

그즈음 우리 조국의 수도 평양의
중심부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끌어온
커미 려명거리가 사회주의 강국을 대
표하는 또 하나의 표준, 본보기거리
로 어려히 키를 솟구고 있었다.

물과 몇 달전까지만도 전망도에 그
려져있던 려명거리가 빌찌 완공의 날
을 미루어가고 있었던 것이다.

하늘을 썄물듯 솟구친 70층 살림집
의 만장을 덮었는가 하면 여기저기
에서 승벽내기로 키운을 끄는 수십
동의 더미, 고층, 초고층 살림집들, 살
림집내부공사도 적극 추진되어 당장
이라도 보금자리를 평수 있게 완성
된 세대수는 1 000여세대, 그런
가 하면 빠른 속도로 특별한 도급을
을 드려내고 있는 당시 짐영화판과
봉사당들.

분초가 다르게 기울을 창조해가는
만리의 건설속도로 하여 이제 얼마
안 있어 완공될것이라고 건설자들이
제당하고 수도시민들도 력관하고
있는 려명거리.

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히 그
이름 지어주신 려명거리완공의 의의
는 자못 크다. 그것은 그 거리가 사
회주의 분명국의 세로에 맞는 거리,
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융장화
례하게 변모시킬 거리이기 때문이다.
아니다.

려명거리건설은 미제와 그 주종세
력들의 치열한 대결전, 사회주의와
제국주의 간의 대결전이었다.

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인민군인
들을 비롯한 려명거리 건설자들이
기여에 열정을 떨리고 있는 그들에
게 밤은 없었다. 건설장의 밤은 불
빛휘황하였다.

그 때 우려 조국의 한 부분인 함북
도의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은 큰물과

의 결연을 벌리고 있었다. 그들은
불어지는 물 풍파 쓸어가는 무더기비
속에서도 가정들에 모신 위대한
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목숨으로
보워하였다. 절안으로 물러드는 물을
보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영상을
두만강이 범람하였다. 갈매를 셀 수
없는 수많은 물새들이 누런 강기
를 치여들고 사자를 내렸다. 산사태가
지는 무시무시한 소리, 온 천지를 뒤
덮고 불어만 가는 황수.

이들이 개학준비는 어찌하고 접
도 없이 당장 들이탁칠 복방의 가혹
한 추위는 이렇게 이겨내겠는가.

사람들은 머리에 맷돌을 얹은 나
이에도 막다른 지경에 둘면 먼저 어
머니를 생각하는 밀이다.

수많은 살림집들이 형체 없이 무너
졌다. 큰물은 풍물풀과 절경, 도
로, 교량과 농경지들을 살피고 훤히
여러렸다.

천막, 통신망마저 끊어져 군에서는
들이 딱히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그
어디에 알릴 수도 없었고 방조를

